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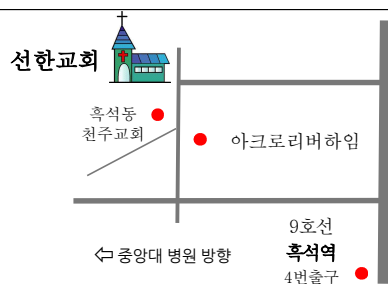
##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           |             |       |                 |          |       |         |
|-----------|-------------|-------|-----------------|----------|-------|---------|
| 주 일 예 배   | 1부 주일 오전    | 9:30  |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          |       |         |
|           | 2부 주일 오전    | 11:00 |                 |          |       |         |
| 오 후 예 배   | 주일 오후       | 3:30  | 유 아 부           | 오전 11:00 | 남전도회  | 오후 2:00 |
|           | (5째주 셀가족모임) |       | 유 초 등 부         | 오전 11:00 | 바 울 회 | 오후 2:00 |
| 중 국 어 예 배 | 주일 오후       | 4:00  | 청 소 년 부         | 오전 10:00 | 마리아회  | 오후 2:00 |
| 수 요 예 배   | 수요일 저녁      | 7:30  | 청 년 부           | 오후 2:00  | 드보라회  | 오후 2:00 |
| 금 요 기 도 회 | 금요일 저녁      | 8:30  | 영 어 예 배         | 오후 3:30  | 에스더회  | 오후 2:00 |
| 새 벽 예 배   | 월-금요일 새벽    | 5:30  |                 |          |       |         |
|           | *월삭새벽예배     | 6:00  |                 |          |       |         |
| 셀 가족 모임   | 셀별로 정한 시간   |       |                 |          |       |         |

## 섬기는 분들

|         |              |           |                      |
|---------|--------------|-----------|----------------------|
| 사 역 자   | 담임목사 임 춘 배   | 국 내 선교사   |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
|         | 교육목사 권 인 혁   | 협 력 교 회   |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
|         | 전임전도사 김 진 만  |           |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
|         | 교육전도사 윤 영    |           |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
|         | 협력전도사 오 효 남  |           |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
| 은 퇴 장 로 | 고 상 돈, 김 대 희 | 해외협력선교사   | 이금춘, 김인실             |
|         | 박 희 태, 유 신 웅 |           | 조나단, 강야엘             |
| 장 로     | 조 계 승 (집사장)  | 관 리 장 로   | 손 석 규                |
|         | 조 윤 익, 박 영 근 | 500/50 교회 | (1호) 필리핀 Good Church |
|         | 윤 호 중        |           |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

##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표 어 맛보아 알지어다 (시34:8)  
Taste And See

실 천 사 항 3가지 습관 기록 교사훈련 선교사의 삶

|                      |           |                 |
|----------------------|-----------|-----------------|
| 삶 의 방 식<br>(빌 4:1-7) | 교회에 대하여 :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
|                      | 개인에 대하여 :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
|                      | 성도에 대하여 :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
|                      | 문제에 대하여 :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9)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                        |                   |                        |
|------------------------|-------------------|------------------------|
| 오 전<br>예 배             | 1부 오전 9:30        | 인도자 : 임춘배 목사           |
|                        | 2부 오전 11:00       |                        |
| 기                      | 원                 | 인도자                    |
| 찬 양 과 경 배              | 19장 (통일찬송가 44장)   |                        |
| 교 독 문                  | 교독문 43번 (시편 99편)  |                        |
| 찬 양 과 경 배              | 543장 (통일찬송가 342장) |                        |
| 기                      | 도                 | 조계승 장로                 |
| 말 씬 봉 독                | 고린도후서 1장 1 ~ 11절  |                        |
| 설                      | 교                 | 모든 위로의 하나님<br>(임춘배 목사) |
| 환 영 및 광 고              | 인도자               |                        |
| 파 송 의 노 래              | 교회여 일어나라          |                        |
| 축                      | 도                 | 임춘배 목사                 |
| 성 도 의 교 제              | 다함께               |                        |
| 수 요<br>예 배             | 오후 7:30           | 인도자 : 임춘배 목사           |
| 솔로몬의 두번째 잠언 (잠25:1-13) |                   |                        |

##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직 회** 다음 주일 2부 예배후에 영상 제직회가 있습니다.
- 3 부 예 배 신 설** 다음주일부터 3부 예배(오후 1시 : 청년예배)를 신설합니다. 청년들은 3부 예배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에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며 ZOOM 으로 온라인 영상을 제공합니다.
- 예 배 안 내**
  1. 주일예배: 주일예배는 1,2부 나누어 드립니다. 2부예배 영상을 제공해 드립니다.
  2. 주중예배: 대면예배로 드리고 금요기도회는 영상을 제공해 드립니다.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읽기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시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시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시다.
- 수험 생 을 위 한  
기**

각자의 자리에서 저녁 8시, 올해 수험생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 김유진, 김필립, 이지은, 장민우  
수능일 : 2021년 11월 18일(목)

  1.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과 담대함과 체력을 허락해 주시도록.
  2. 수시모집 지원 후 면접과 실기 준비중에 있는데 모든 일정을 주관하시고 최고의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3. 어려움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되도록

## 한주간의 기도제목

- 개인 경건 훈련에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고3 수험생들의 강한 체력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수 있도록

찬송 : ‘날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통 351)  
본문 : 사사기 20장 1~48절  
말씀 : 저마다 다른 곳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모든 지파가 모인, ‘이스라엘의 총회’가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은 레위인에게 첩이 어떻게 하다가 죽임을 당했는지 물었습니다. 레위인은 기브아에서 당한 일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몹쓸 짓을 저지른 불량배들을 비난했습니다. 레위인이 느낀 원한과 분노는 삼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파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와 싸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의기양양한 태도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워야 합니까.” 여호와와는 유다가 먼저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냐민과의 첫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싸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4만명의 군사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온종일 금식하면서 번제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자, 다시 이스라엘 총회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총회가 열린 미스바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곳은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섬기던 우상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러면서 신앙을 회복했던 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만약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후대에도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상황은 달랐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총회에서 먼저 회개하면서 회의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일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4만 군사를 잃고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돼서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 주리라.”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은 뒤에야 이스라엘은 베냐민 사람 2만5000명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 20장 46~48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여러분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혹시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참된 회복이 있을 때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     |                                                                                                                                                                                                                                                                                              |  |
|-----|----------------------------------------------------------------------------------------------------------------------------------------------------------------------------------------------------------------------------------------------------------------------------------------------|--|
| 제 목 | 모든 위로의 하나님 (고후1:1-11)                                                                                                                                                                                                                                                                        |  |
| 서 론 |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  |
| 본 론 | 1. 고린도후서 서론                                                                                                                                                                                                                                                                                  |  |
|     | (1) 바울의 고린도 3번의 방문과 4개의 편지<br>(2) 고린도후서의 기록목적: 바울이 자신의 행동을 해명하고 사도권을 보호하기 위함<br>(3) 바울의 사도직의 기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1절)<br>(4)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3절)<br>(5)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br>①하나님께 위로 받게 하심(4,5절)<br>②그 위로로 환난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심(4,6절)<br>③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9절) |  |
| 결 론 | 2. 교훈                                                                                                                                                                                                                                                                                        |  |
|     | (1)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쓴 목적이 무엇인가?<br>(2) 나는 나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할 줄 아는가?<br>(3) 우리 교회는 위로받고 위로하는 공동체인가?                                                                                                                                                                                                    |  |
| 결 론 | 교회 공동체를 통해 고침 받고 위로를 주고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

예배 섬김이

|         | 오늘 섬기실 분 | 다음 주 섬기실 분 |
|---------|----------|------------|
| 예 배 기 도 | 조계승 장로   | 박영근 장로     |

| 매일 Q.T. |                                                                                                                                                                                                                                                                             | 고통을 더할 뿐인<br>헛된 위로자 | 날짜 : 11월 1일 |
|---------|-----------------------------------------------------------------------------------------------------------------------------------------------------------------------------------------------------------------------------------------------------------------------------|---------------------|-------------|
| 찬양      |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                     |             |
| 본문      | 욥기 16:1-17                                                                                                                                                                                                                                                                  |                     |             |
| 말씀요약    | <p>욥은 친구들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라면 친구를 입으로 강하게 하고, 입술의 위로로 근심을 풀어 주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악인의 손에 넘겨 모욕받게 하셨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손에는 포학이 없고 자신의 기도는 정결하다고 말합니다.</p>                                                                                                       |                     |             |
| 묵상질문 1  | <p>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16:1-6</p> <p>욥이 친구들을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로라는 명목으로 상대방을 더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p>                                                                                                                                                                  |                     |             |
| 묵상질문 2  | <p>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16:7-17</p> <p>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일은 욥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고난 중에 사람들의 말과 태도로 인해 괴로울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p>                                                                                                                                                        |                     |             |
| 한절묵상    | <p>욥기 16장 7-8절</p> <p>욥의 진술에서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무섭게 대하시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시들게 하다’는 ‘뒤흔다’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욥을 포박하여 죄수처럼 다루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 진노를 모두 받으셨기에,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되어졌습니다. 참 자유의 비결은 예수님 안에 묶이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p> |                     |             |
| 적용      |                                                                                                                                                                                                                                                                             |                     |             |
| 오늘의 기도  | <p>제 판단이 앞선 말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고 힘들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적 위로는 내려놓고 말씀으로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저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의로움을 잃지 않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소서.</p>                                                                                                                   |                     |             |

| 개인성경공부     |                                                                                                                                                                                                                                                                                                                                                                                                                                                                                                                                                                                                       | “주님만이 위로자십니다” |
|------------|-------------------------------------------------------------------------------------------------------------------------------------------------------------------------------------------------------------------------------------------------------------------------------------------------------------------------------------------------------------------------------------------------------------------------------------------------------------------------------------------------------------------------------------------------------------------------------------------------------|---------------|
| 찬양과 기도     |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새 337, D)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               |
| 묵상 나눔      |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               |
| 이야기 속으로    | <p>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 자리가 공석이 되어 청빙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청빙위원회에서는 몇몇 목회자에게 설교를 요청했습니다. 한 목회자가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감’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9편 17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들은 청빙위원회 회장과 몇몇 위원은 이 목사님을 좋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또 다른 목회자가 와서 똑같이 시편 9편 17절 말씀으로 설교했습니다. 이번에는 청빙위원회 회장을 비롯한 위원들 대부분이 “저분을 우리 담임 목회자로 모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본문의 설교였지만 두 번째로 설교한 목회자를 청빙하기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목회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움이나 속상함이 전혀 없었지만, 두 번째 목회자는 설교 중에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할 때 두 눈에 눈물이 고였고 목소리에 안타까운 떨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담임 목회자로 청빙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던 적이 있나요?</p> |               |
| 말씀 나누기     | 욥기 16:18~17:5                                                                                                                                                                                                                                                                                                                                                                                                                                                                                                                                                                                         |               |
| 묵상포인트      |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문제와 한계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어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낄 때도 있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오는 정죄와 비난의 손가락질로 큰 상처를 받아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내 편이 되어 나를 변호하고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최고의 방법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뿌리내리도록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유일한 위로자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               |
| 나에게 주신 메시지 |                                                                                                                                                                                                                                                                                                                                                                                                                                                                                                                                                                                                       |               |
| 관찰과 묵상     | 엘리바스의 훈계를 들은 욥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 줄 이가 누구라고 고백하나요?(16:19)                                                                                                                                                                                                                                                                                                                                                                                                                                                                                                                                                   |               |
| 적용하기       |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위로받은 경험이 있나요?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던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               |
| 함께 기도하기    |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위로를 기대하며 살게 하소서. 사람의 말이나 상황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게 하소서.                                                                                                                                                                                                                                                                                                                                                                                                                                                                                               |               |
| 기도         |                                                                                                                                                                                                                                                                                                                                                                                                                                                                                                                                                                                                       |               |

| 매일 Q.T. |                                                                                                                                                                                                                                                           | 고난의 때에 더해지는<br>내적 상처와 소외감 | 날짜 : 11월 5일 |
|---------|-----------------------------------------------------------------------------------------------------------------------------------------------------------------------------------------------------------------------------------------------------------|---------------------------|-------------|
| 찬양      |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             |
| 본문      | 욥기 19:1-20                                                                                                                                                                                                                                                |                           |             |
| 말씀요약    | 욥은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들에게 항변하며, 자신을 억울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길을 막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희망을 뿌리째 뽑아 버리셨습니다. 욥은 형제, 친척, 종, 아내, 어린아이, 친구가 다 자신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며 원수가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                           |             |
| 묵상질문 1  | 언제까지 나를 괴롭힐 것인가 19:1-6<br>욥이 친구들에게 당한 괴로움은 어느 정도인가요? 고난당하는 친구와 이웃에게 상처를 주며 함부로 대할 때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보실까요?                                                                                                                                                     |                           |             |
| 묵상질문 2  |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 되었다 19:7-20<br>욥이 겪은 소외 경험은 얼마나 심한 것이었나요? 욥처럼 고난 중에 소외를 경험할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                           |             |
| 한절묵상    | 욥기 19장 13절<br>세상은 돈과 권력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반대로 연약함은 사람의 외면과 멸시를 받습니다. 하지만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참으로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까지 대신 담당해 주십니다. 사람은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사람이 찾는 것을 찾지 않으시고,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입니다. |                           |             |
| 적용      |                                                                                                                                                                                                                                                           |                           |             |
| 오늘의 기도  |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날에도 결코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 시선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길 원합니다. 삶을 삼키는 고난에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소서.                                                                                                  |                           |             |

| 매일 Q.T. |                                                                                                                                                                                                                                                       | 주님이 고난당한 성도의<br>증인이요 중보자입니다 | 날짜 : 11월 2일 |
|---------|-------------------------------------------------------------------------------------------------------------------------------------------------------------------------------------------------------------------------------------------------------|-----------------------------|-------------|
| 찬양      |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                             |             |
| 본문      | 욥기 16:18-17:5                                                                                                                                                                                                                                         |                             |             |
| 말씀요약    | 욥은 자신의 증인이요 중보자가 하늘에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물 흘리며 그분의 중재를 원합니다. 욥은 자신을 조롱하고 충동하는 자들이 함께 있다며 탄식합니다. 그는 주님께 담보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보상을 얻고자 친구를 비난하는 자를 저주합니다.                                                                                                |                             |             |
| 묵상질문 1  | 내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 16:18-22<br>욥이 하나님을 ‘증인’과 ‘중보자’로 고백하며 간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불의한 상황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내가 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             |
| 묵상질문 2  | 주님이 나의 보증이 되소서 17:1-5<br>주님이 욥의 ‘담보물’(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님 앞에 내가 구할 은혜는 무엇인가요?                                                                                                                                                        |                             |             |
| 한절묵상    | 욥기 16장 19절<br>욥은 고통 속에서 자신을 위해 증언해 줄 하늘의 증인과 중보자를 떠올립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그런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고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늘의 증인과 중보자는 희망 사항이 아니라 실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밤낮으로 참소하는 사탄 앞에서 우리의 무죄함을 밝히시는 증인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                             |             |
| 적용      |                                                                                                                                                                                                                                                       |                             |             |
| 오늘의 기도  | 저를 둘러싼 상황과 하루하루가 숨 막히게 느껴져도 제 인생에 영원한 보증이 되신 주님만 붙들게 하소서. 주님이 비난과 조롱의 수모를 기꺼이 견디며 가신 길을 되새깁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변호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두려움을 떨치고 다시 새 결음을 내딛게 하소서.                                                                                                   |                             |             |

| 매일 Q.T. |                                                                                                                                                                                                                                                       | 죽음 같은 절망에서<br>필요한 참된 위로자 | 날짜 : 11월 3일 |
|---------|-------------------------------------------------------------------------------------------------------------------------------------------------------------------------------------------------------------------------------------------------------|--------------------------|-------------|
| 찬양      | 찬송가 543 어려운 일 당할 때                                                                                                                                                                                                                                    |                          |             |
| 본문      | 욥기 17:6-16                                                                                                                                                                                                                                            |                          |             |
| 말씀요약    |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셔서 침 뱉음을 당한다고 호소합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모두 돌아오라고 요청하며, 자신의 날이 지나갔고 계획도 소원도 다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욥은 스올이 자기 집이 되어 흑암에 눕기를 바랄 뿐, 자신에게 더는 희망이 없다고 탄식합니다.                                                                                         |                          |             |
| 묵상질문 1  | 너희는 모두 다시 돌아오라 17:6-10<br>욥의 말에 따르면, 친구들이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요? 내가 비난을 그치고 참된 위로를 전할 친구는 누구인가요?                                                                                                                                                       |                          |             |
| 묵상질문 2  | 나의 날들은 지나갔다 17:11-16<br>욥이 죽음을 집이나 가족같이 친숙하게 느낀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말해 주나요? 내가 죽음 가까이에서 삶의 의미를 깊이 느낀 것은 언제였나요?                                                                                                                                                |                          |             |
| 한절묵상    | 욥기 17장 15-16절<br>고통이 가득할 때, 사람은 죽음을 문제 해결의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곤 합니다. 욥은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인해 죽음을 희망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에게 죽음은 곧 절망이요 심판의 순간입니다. 반면,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고 선했던 싸움을 하는 성도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음이 아닌 산 소망 되신 예수님입니다. |                          |             |
| 적용      |                                                                                                                                                                                                                                                       |                          |             |
| 오늘의 기도  | 죽음을 호소할 만큼 깊은 고난에 좌절해서 그 고난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을 소망하며 곳곳이 살아 내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소서.                                                                                                |                          |             |

| 매일 Q.T. |                                                                                                                                                                                                                                                                | 고난이 악인의 운명이라는<br>섬부른 단언 | 날짜 : 11월 4일 |
|---------|----------------------------------------------------------------------------------------------------------------------------------------------------------------------------------------------------------------------------------------------------------------|-------------------------|-------------|
| 찬양      | 찬송가 381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                         |             |
| 본문      | 욥기 18:1-21                                                                                                                                                                                                                                                     |                         |             |
| 말씀요약    | 빌닷이 악인의 빛은 꺼지기 마련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발은 그물에 빠지고,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는 무서운 것들이 뒤쫓습니다. 기근과 재앙과 질병이 그에게 있으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은 사라지고 후손도 없을 것입니다. 불의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운명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                         |             |
| 묵상질문 1  | 분노로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18:1-4<br>빌닷은 욥의 어떤 모습을 비난했나요?(4절)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             |
| 묵상질문 2  |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처소 18:5-21<br>빌닷의 묘사는 누구의 운명을 말하고자 함인가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욥처럼 비난받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                         |             |
| 한절묵상    | 욥기 18장 5-6절<br>빌닷은 욥을 죄인으로 낙인찍고 그의 최후가 악인처럼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빌닷의 독설은 오류투성이입니다. 먼저 욥은 그가 함부로 낙인찍을 만한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죽음을 악인의 파멸로 보는 그의 생각도 틀렸습니다. 악인의 파멸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악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큰 파멸, 곧 영원한 형벌의 시작입니다. 이 형벌을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                         |             |
| 적용      |                                                                                                                                                                                                                                                                |                         |             |
| 오늘의 기도  | 제 생각과 다르다고, 제 충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남을 비난한 적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함부로 단정 지어 내뱉던 말들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제 안을 채워 사랑의 말을 전하게 하소서. 제가 겪은 고난이, 지금 고난을 지나는 이를 잡아 주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                         |             |